

# 20세기 전반 광주의 판소리 전통과 광주성악연구회

신은주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국악이론 전공  
shejpro@hanmail.net

I. 머리말

II. 20세기 전반 광주의 판소리 전통

III. 광주성악연구회

IV. 맺음말

## I. 머리말

광주성악연구회는 1945년 해방 직후 박동실·오태석·조몽실·조상선·성원목·공기남 등이 모여 조직한 것으로, 해방 이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조직된 창악인들 중심의 단체이다. 창단 몇 달 후인 이듬해 초 구성원의 대부분이 서울로 상경하면서 해체되었으나, 전남 일대를 순회공연하며 큰 인기를 모았고, 서울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판소리 창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악연구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는 것에 광주성악연구회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 전승이나 활동, 특히 단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주성악연구회 역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 전승과 활동,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광주성악연구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20세기 전반 광주의 판소리 전통

### 1. 광주를 중심으로 한 판소리 계보

광주는 서편제의 고장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판소리 명창이 나와 활동하였다. 해방 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성악연구회’가 태동할 수 있었던 근원적 뿌리는, 오랜 세월 축적되어온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리 계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 1) 김채만과 그의 문하

광주지역 소리 계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김채만이다. 그는 1865년 전남 화순 능주에서 출생하여, 광주 속골(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구암촌)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1902년 김창환의 권유로 상경하여 한동안 원각사에 참여하였고, 1907년부터 김창환 협률사에 함께하였다. 1910년 협률사 해체 뒤 광주 속골로 돌아와 제자를 양성하다가<sup>1)</sup>,

---

1)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도서출판 사사연, 1987), 162-164쪽.

이듬해 강진에서 4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김채만의 간단한 이력을 살펴보면, 그의 제자 양성 기간은 1910년 이후 1년 남짓인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소리 전승은 1910년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김채만의 제자인 공창식의 경우 16세 때 김채만의 문하에 들어가 3년간 수련하였다고 하는데<sup>2)</sup>, 공창식이 1887년생이므로 그의 나이 16세는 1903년 무렵이 된다. 즉, 김채만은 원각사나 협률사에 참여하던 1900년대에도 서울에만 머물렀다고 볼 수 없고,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소리를 전승하였으며, 1910년 협률사 해체 이후에 집중적으로 광주 속골에서의 소리 전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채만의 제자로는 박동실을 비롯하여 공창식·박화섭·한성태·박종원·신용주·성원목·김정문 등이 있고, 이들은 흔히 ‘속골명창’이라고 불린다.<sup>3)</sup>

#### (1) 박동실과 그의 제자

김채만의 소리는 박동실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었고, 광주성악 연구회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또한 박동실이다. 박동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박동실의 출생연도와 출생지에 대해 대부분 1897년 9월 8일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출신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복측 자료에서는 담양군 금성면 대판리의 세습적으로 음악을 물려오는 가정에서 출생하였다고 적고 있다. 한편, 제적등본에 의하면 1923년 광주군 본촌면 용두리에서 담양지역으로 전적하였고, 따라서 그의 출생지는 광주군 본촌면 용두리일 가능성이 있다.<sup>4)</sup> 부친 박장원과 외조부 배희근으로부터 집안의 소리를 이어받았으며, 배희근의 제자인 김재관을 통해 명창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sup>5)</sup> 13세인 1909년 광주의 ‘양명사라는 창극 단체의 〈춘향전〉 공연에서 춘향 역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았다.<sup>6)</sup> 박동실의 소리 기량은 김채만에게서 심청가, 적벽가 등을 본격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더욱 세련되어지며 서편제 판소리의 대표적인 창자로 거듭났는데, 박동실이 김채만에게 소리를 학습한 시기는 10여 세로 추정된다.<sup>7)</sup>

2) 박황(1987), 위의 책, 188-189쪽;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보고사, 2012a), 61쪽.

3) 배성자, 「박동실 판소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14쪽.

4) 정병현, 「박동실의 삶과 판소리 활동」, 『월북국악인연구』(국립국악원, 2013), 34-35쪽.

5) 정병현(2013), 위의 논문, 35쪽.

6)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1』(윤이상음악연구소, 1998), 289-299쪽.

박동실의 본격적인 제자 양성은 박석기의 후원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실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제자로는 한애순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김소희 · 임유앵 · 임춘앵 · 박귀희 · 오비연 · 전명옥 · 박명주 · 박후성 · 김녹주 · 안채봉 · 공기남 · 조상선 · 조해숙 등이 그에게 소리를 배웠다.<sup>8)</sup> 지실에서 박동실의 제자 양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대체로 1934년 무렵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up>9)</sup>, 1935년 무렵으로 보기도 하고,<sup>10)</sup> 1938년부터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sup>11)</sup> 그러나 박동실에게 소리를 배운 한애순의 증언에 의하면, 박석기가 한애순이 판소리에 재질이 있음을 듣고 12세 때 창평(담양)으로 불러들여, 취재를 통해 박동실을 사범으로 정한 후 4년간 한애순이 박동실에게 판소리를 배웠다고 한다.<sup>12)</sup> 한애순이 1924년 12월 26일생이니, 그녀의 나이 12세라면 1935년이 된다. 즉, 지실에서 박동실의 소리 전승은 1935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지실에서의 소리 전승이 1939년 박석기가 화랑창극단을 결성하고 박동실이 이 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단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는데<sup>13)</sup>, 광주 출신 소리꾼인 박춘성이 22세인 1942년 지실에서 박동실에게 3개월쯤 판소리를 공부하였다고 하므로<sup>14)</sup>, 1940년대에도 지실에서 박동실의 소리 전승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동실은 담양 지실에서뿐 아니라 권번에서도 소리를 가르쳤는데, 1939년 안채봉이 광주 남동의 권번에서 박동실에게 심청가를 배웠다고 한다.<sup>15)</sup>

7) 이보형,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6) 판소리유파』(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86쪽.

8) 정병헌,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제36권(한국민속학회, 2002), 218쪽; 『조선민속음악가사전(상)』(길림: 연변대학출판사, 1998)(이진원, 「박동실 증언 “창극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를 통해 본 창극의 초기 양상」, 『판소리연구』 제18집, 판소리학회, 2004b, 172쪽에서 참조).

9)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 판소리에 끼친 영향」, 사단법인 전주 대사습놀이보존회 편, 『판소리의 탐구 1』(신아출판사, 2002), 59쪽.

10) 정대하, 「세습무계의 통혼과 판소리 전승의 상관성: 광주소리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17쪽.

11) 1934년과 1935년은 박동실이 협률사를 따라 전국을 순회하던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에는 지실에서의 소리 전승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본다. 정병헌(2002), 앞의 논문, 218쪽.

12) 이보형(1992), 앞의 책, 153쪽; 정대하(2005), 앞의 논문, 19쪽, 29쪽.

13) 배성자(2008), 앞의 논문, 20쪽.

14) 이보형(1992), 앞의 책, 141쪽.

15) 이보형(1992), 위의 책, 148쪽.

박동실의 제자 중 광주성악연구회 구성원이었던 이들은 조상선, 한애순, 안채봉이다.

조상선은 세습 예인 집안 출신으로, 1909년 3월 11일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금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김정문에게 잠시 소리를 배우고, 서울로 상경하여 정정렬의 수제자가 되었다. 박동실에게도 소리를 배웠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창작 창극에 관심이 많아 1937년 창극 〈옥루몽〉을 비롯하여 10종이 넘는 창극을 창작하였는데, 1940년대 공연된 창작 창극의 다수가 조상선의 작품이다. 화랑창극단과 광주성악연구회에서 활동하였고, 38세(1946)에 창극단체 국극사를 조직하였으며, 39세에는 대한국악원에서 국극부장을 맡았다. 이후 월북하여 박동실, 안기옥 등과 함께 꾸준히 창극 활동을 하였다.<sup>16)</sup>

한애순은 세습 예인 집안 출신으로, 1924년 12월 26일 전남 곡성군 옥곡면에서 출생하였다. 10세(1933)부터 오빠인 한재옥에게 소리를 익히기 시작하였으며, 12세(1935)부터 4년간 담양군 남면의 지실초당에서 박동실에게 심청가·수궁가 두 바탕과 춘향가·적벽가 일부를 배웠다. 이후 임방울의 수궁가와 박록주의 흥보가도 학습하였다. 화랑창극단·동일창극단·광주성악연구회·임방울창극단·여성국악단에서 활동했으며, 29세(1952)부터 7년간 광주국악원에서 판소리사범으로 있었다. 1973년부터 광주시립국악원의 판소리사범으로 활동하였으며, 1974년 한애순이 전남도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이날치-김채만-박동실-한애순으로 이어지는 심청가가 문화재 지정을 받았고, 이후 광주시지정문화재 제1호로 이관되었다.<sup>17)</sup>

안채봉의 출생 연도와 출생지가 박황의 기록에는 1920년 전남 광산군 평동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sup>18)</sup>, 이보형의 조사에 의하면 1926년 10월 8일 나주군 남평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sup>19)</sup> 세습 예인 집안

16) 조상선 참고 자료: 전경옥 편저, 『한국전통연희사전』(민속원, 2014), 930-931쪽; 성기린, 「1940-195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판소리연구』 제22집(판소리학회, 2006); 권오성, 「판소리 발성법의 특성: 조상선의 글을 중심으로」, 『월북국악인연구』(국립국악원, 2013), 271-273쪽;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04-109쪽.

17) 한애순 참고 자료: 이보형(1992), 앞의 책, 152-154쪽; 정대하(2005), 앞의 논문, 29-30쪽.

18) 박황, 『판소리소사』(신구문화사, 1976b), 181쪽. 송방송의 『한겨레음악대사전』 1146쪽에도 1920년 광주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박황의 기록을 참조한 듯하다.

19) 이보형(1992), 앞의 책, 147쪽.

출신으로, 안기옥<sup>20)</sup>·안기선<sup>21)</sup>과 사촌지간이다. 안채봉은 11세 때 광주 남동의 권번에서 박동실에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12세 무렵에는 함남의 청진권번<sup>22)</sup>에서 임옥돌에게 단가와 수궁가 중 일부를 배웠다. 2년쯤 후에 나주 남평으로 돌아와, 14세에 백부 안영권의 권유로 광주권번에서 박동실로부터 심청가 중 ‘주과포혜’에서부터 ‘심청 물에 빠지는 대목’까지 배웠다. 이후 박영구에게 검무와 살풀이춤을 배웠으며, 김종기에게는 가야금을 배웠고, 18세에 사촌 안기선에게 춘향가 일부를 배우고, 19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화중선 문하에 들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조몽실과 함께 활동하면서 조몽실로부터 2년간 춘향가와 흥보가 일부를 배웠으며, 32세부터 4년간 정웅민에게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 일부를 배웠다.<sup>23)</sup> 즉, 안채봉은 박동실뿐 아니라, 여러 스승에게서 소리를 익혔다. 1939년 동일창극단·1945년 광주성악연구회와 조선고전음악연구회에서 활동하였고, 1980년부터 광주시립국악원의 창악 선생으로 있었다.<sup>24)</sup> 1989년 광주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정웅민에게서 배운 김세종제 춘향가이다.

## (2) 공창식과 그의 제자

김채만의 또 다른 제자인 공창식은 1887년 화순 능주면 출생이다. 16세 때 김채만의 문하에 들어가 3년간 심청가 등을 배우고, 능주로 돌아와 독공으로 소리를 익히다가, 1910년부터 김채만이 별세한 1911년까지 1년 남짓 재수련하였다. 광주협률사에 참여하여 활동했으며, 1936년

20) 안기옥의 부친인 안영길이 안채봉의 아버지 안영권의 장형이다. 이보형(1992), 위의 책, 147쪽.

21) 안기선은 안채봉 아버지 안영권의 둘째 형의 차남으로, 안채봉에게는 4촌 오라버니이다. 안기선의 딸이 안향련이다(이보형(1992), 위의 책, 148쪽).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1146쪽에는 안기선과 안채봉이 동일인으로, 본명이 안기선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22) 청진권번은 박동실·안기옥·임옥돌이 만들었다고 한다. 남평읍지편찬위원회 편, 『남평읍지』(남평읍지편찬위원회, 2012), 1266쪽.

23) 인채봉은 안기선에게서 춘향가 중 〈사랑가〉-〈이별가〉, 조몽실로부터 2년간 춘향가 중 〈이별가〉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박타는 데〉, 정웅민에게서는 춘향가 중 〈박석티〉-〈어사출도〉까지, 심청가 중 〈아버지 들으시오〉-〈물에 빠지는 데〉까지, 수궁가 중 〈영덕전 뒤로〉-〈고고천변〉까지, 적벽가 중 〈니내 설음〉-〈자룡 활 쏘는 데〉까지 배웠다. 안채봉의 학습 이력에 대해서는 이보형의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6) 판소리 유과』, 147-149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4) 송방송(2012a), 앞의 책, 1146쪽.

50세에 타계하였다.<sup>25)</sup> 아들인 공기남과 팔촌동생 공대일을 비롯하여 조몽실·조동선 등에게 소리를 전수하였고, 이들은 모두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공기남은 1917년 전남 화순군 도곡면 출생으로, 16세 때 아버지 공창식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웠다. 19세 때 부친 사망 이후 박동실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1939년 화랑창극단, 1945년 해방 후 대한국악원의 창극단 및 광주성악연구회, 1948년 국극협회에서 활동하였다. 1948년 월북하였고, 1971년 사망하였다.<sup>26)</sup>

공대일은 1910년 전남 화순 출신이라는 기록과<sup>27)</sup>, 호적을 근거로 하여 1911년 전남 승주군 송광면 월산리 출생<sup>28)</sup>이라는 두 설이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이 두 지역이 매우 인접해 있으며, 공대일이 소리를 배운 공창식이 화순 출신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대장과 공옥진의 증언, 공대일의 묘소 등의 증거에 의하면, 화순보다는 승주군 송광면 월산리 출신이라는 데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sup>29)</sup> 공대일의 학습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의견이 있는데, 박황의 기록에 의하면 15세부터 5년간 박동실에게 소리 공부를 하고, 이후 독공하다가 다시 박동실에게 3년간 재이수하였다고 한다.<sup>30)</sup> 그러나 공대일의 증언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15세 때 공창식에게 처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홍보가와 춘향가를 배우고, 이후 장판개를 거쳐 박기채·박동실·성원목·임방울 등 여러 선생에게 소리를 배웠다.<sup>31)</sup> 공대일은 동일창극단·광주성악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1974년 5월 29일 판소리 홍보가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sup>32)</sup>, 박동실에게서 이어받은 소리는 심청가이다.

조몽실은 1900년 전남 화순군 능주 출생으로, 세습 예인 집안 출신이

25) 박황(1987), 앞의 책, 188-189쪽.

26) 송방송(2012a), 앞의 책, 184쪽.

27) 박황(1976b), 앞의 책, 187쪽.

28) 이명진,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속학연구』 제15호(실천민속학회, 2010), 265쪽.

29) 이명진(2010), 위의 논문, 265쪽.

30) 박황(1976b), 앞의 책, 187쪽.

31) 이명진(2010), 앞의 논문, 270-271쪽.

32) 공대일은 자신의 홍보가가 동편제로 박녹주, 강도근 판과 비슷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설 구성이나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누구의 제라고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구성되어 있다. 이명진(2010), 위의 논문, 272-273쪽.

다.<sup>33)</sup> 어려서부터 공창식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오랜 기간 심청가를 연마하였고, 이후 김창환 문하에서 나머지 네 바탕을 학습한 후 고향에서 3년간 독공하였다.<sup>34)</sup> 1935년 상경하여 활동하였으나 이내 고향으로 돌아왔고, 1940년 조선음악단과 조선창극단에서 활동하였으며, 1947년 국극협단에도 참여하였다.<sup>35)</sup> 1949년 5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조몽실의 소리를 제대로 잇고 있는 창자는 없다.

조동선은 1900년 화순군 능주면 출생으로, 10세부터 2년간 공창식에게 심청가와 춘향가를 배운 이후 박동실과 장판개 문하에서 흥보가와 적벽가를 배웠다. 순천권번에 소리 선생으로 있었으며<sup>36)</sup> 광주성악연구회 이외에도 조선창극단과 국극협단에 참여하여 창극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자로 마산 남선권번 출신의 김애정이 있다.<sup>37)</sup>

### (3) 박화섭과 그의 제자

박화섭은 1888년 광주 출생으로, 12세인 1899년 김채만 문하에 들어가 5년간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를 익혔고<sup>38)</sup>, 17세부터 5년간 광주 무등산 원효사에서 독공하였다. 1912년부터 광주협률사에 참여했으며, 1920년에는 협률사를 그만두고 경주권번의 소리 선생으로 갔다. 1935년 고향으로 돌아와 조가 박후성을 후계자로 정하고 그와 함께 다시 경주로 갔으며, 1939년 지병으로 타계하였다.<sup>39)</sup> 1928년 전남 화순 출신의 김동준도 박화섭에게 소리를 배웠으나<sup>40)</sup>, 이후 고수로 활동하였다.

박화섭의 조카이자 제자인 박후성의 출생과 관련하여, 1921년 11월

33) 조몽실은 줄타기와 대금의 명인이었던 조종엽의 아들이자, 능주 신청 대방을 지냈던 줄타기 명인 조종률의 조카, 능주지역 셋김굿의 명인인 조도화(본명 조동운)의 숙부,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의 예능보유자이자 여성국극 배우인 조영숙의 아버지이다. 정대하(2005), 앞의 논문, 45-46쪽.

34) 박황(1976b), 앞의 책, 139-140쪽.

35) 박황(1987), 앞의 책, 244쪽.

36) 이보형·성기륜, 「한승호 명창 대담자료」, 『관소리연구』 제16집(관소리학회, 2003), 380쪽.

37) 조동선에 대해서는 송방송의 『한겨레음악인대사전』(보고사, 2012, 830쪽)과 『한겨레음악대사전』(184쪽, 947쪽, 1674쪽) 참조.

38) 박화섭은 김채만에게만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이보형(1992), 앞의 책, 86쪽.

39) 박황, 『관소리 이백년사』, 190-191쪽.

40) 1990년 10월 7일자 《한겨레신문》 김동준 타계 보도 기사(국악음반박물관, 『명창, 소리에 힘을 싣다』 채륜, 2014, 217쪽에서 참조).



15일 광주 금동에서 출생하였다는 박황의 기록<sup>41)</sup>과, 1922년 11월 15일 광주시 서구 서동에서 출생하였다는 이보형의 조사<sup>42)</sup>가 있다. 이 역시 어떤 기록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박황의 기록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고, 이보형의 조사는 1988-1990년에 걸쳐 3년 동안 판소리 기능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전승실태를 조사하고 대담한 자료로서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이보형의 글에 임술생(壬戌生)이라 기록한 점으로 볼 때 임술년인 1922년이 옳을 듯싶다.

박후성의 소리 학습 역시 일치하지 않는 여러 기록이 있다.

- ① 16세에 광주에서 성원목에게 2년간 홍보가를 배우고, 18세 때 광주에서 1년간 박화섭에게 춘향가를 배운 뒤, 박화섭과 함께 경주권번으로 갔다가 3개월 만에 중단하고 광주로 돌아와, 20세 무렵부터 박동실에게 3년간 춘향가·심청가·적벽가 절반가량을 배웠다.<sup>43)</sup>
- ② 1935년부터 박화섭이 타계한 1939년까지 5년간 경주권번에서 박화섭에게 소리를 배웠다.<sup>44)</sup>
- ③ 처음 조몽실에게 소리 공부를 시작하여 심청가를 이수하고, 이후 박종원에게 홍보가와 수궁가를 배운 뒤, 1939년 화랑창극단에 입단하였다.<sup>45)</sup>

②번과 ③번의 기록은 모두 박황의 것이되, 두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①번은 이보형의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로, 박후성의 학습 내력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박후성의 학습 내력은 성원목-박화섭-박동실로 이어지는 이보형의 기록이 옳을 듯싶다.

#### (4) 박종원과 그의 제자

박종원은 1894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한 뒤, 광주에서 성장하였고, 13세부터 3년간 한성태의 부친 한덕만에게 대금을 배워 기예가 출중하였다. 소리 공부는 18세부터 김채만의 문하에서 시작하였다.<sup>46)</sup> 1960년대 후반 무렵에 사망했으며<sup>47)</sup>, 그의 제자로는 한승호가 있다.

41) 박황(1987), 앞의 책, 253쪽.

42) 이보형(1992), 앞의 책, 41쪽.

43) 이보형(1992), 위의 책, 41-42쪽.

44) 박황(1987), 앞의 책, 254쪽.

45) 박황(1976b), 앞의 책, 169쪽.

46) 박황(1976b), 위의 책, 132쪽.

47) 이보형(1992), 앞의 책, 86쪽.

한승호는 광주 금남로 출신으로, 1923년생<sup>48)</sup>과 1924년생<sup>49)</sup>이라는 서로 다른 기록이 있다. 그러나 1924년이라는 기록이 많고, 1923년이라는 기록은 잡지 기사이며, 무형문화재 조사 자료 및 한승호 증언 자료에 ‘갑자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한승호는 갑자년인 1924년생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한승호의 학습 내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① 7세부터 7년간 박종원에게 소리 학습. 1937년 상경하여 송만갑의 지침을 받음.<sup>50)</sup>
- ② 1930년 박종원에게 판소리 사사. 1937년 조선성악연구회 입회. 송만갑·이동백 국창을 수행 공연. 1943년 박종원 선생에게 재수.<sup>51)</sup>
- ③ 광주권번의 소리 스승이던 장판개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 일 년쯤 뒤에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 연구생이 됨. 송만갑에게 3~4년간 심청가·적벽가·홍보가·춘향가를 고루 배움. 광주로 돌아와 김채만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공부.<sup>52)</sup>
- ④ 9~15세까지 광주에서 성원목에게 심청가 배움. 12, 13세 때 박종원에게 소리 배움. 15, 16세 때 상경하여 17, 18세까지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송만갑에게 소리 배움. 17, 18세 무렵 변성기가 되어 독공.<sup>53)</sup>
- ⑤ 8세부터 소리 공부방에 다니기 시작. 심청가부터 시작하고 단가를 익혔는데, 박동실에게 배움. 15세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송만갑에게 배움.<sup>54)</sup>
- ⑥ 9세에 성원목에게 처음 소리 배움. 박종원과 박동실에게도 소리 배움.<sup>55)</sup>

위 6개 기록이 모두 다른데, 대체로 공통적인 것은 1930년대 후반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웠다는 점이다. 또한 ①, ②, ④, ⑥번은 박종원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③은 김채만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누구에게 소리를 배웠는지 정확한 스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박종원이 아닌가 싶다. 다만, 박종원에게 소리를 학습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①번 기록에서는 7세에 처음 소리를 배울 때 박종원에게 배우기

48) 음악동아 엮음, 『명인명창』(동아일보사, 1987), 62쪽.

49)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연구회, 『판소리명창』 창간호(2005), 221쪽; 이보형(1992), 앞의 책, 85쪽; 박황(1976b), 앞의 책, 175-176쪽; 이보형 외, 「판소리 인간문화재 증언자료: 판소리 명창 한승호」, 『판소리연구』 제2집(판소리학회, 1991), 197쪽; 이보형·성기련(2003), 앞의 논문, 367쪽.

50) 박황(1976b), 위의 책, 175-176쪽.

51)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연구회(2005), 앞의 책, 223쪽.

52) 음악동아 엮음(1987), 앞의 책, 62-65쪽.

53) 이보형(1992), 앞의 책, 85-89쪽.

54) 이보형 외(1991), 앞의 논문, 197-209쪽.

55) 이보형·성기련(2003), 앞의 논문, 367-394쪽.

시작하여 상경 이전에 7년을 학습하였다고 하고, ④와 ⑥은 성원목에게 먼저 소리를 배운 뒤에 박종원에게 소리를 학습하였으며, ③번 기록은 상경하여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운 이후에 다시 광주로 돌아와 박종원에게 학습, ②번은 상경 전후로 모두 박종원에게 소리를 학습하였다고 한다. 유일하게 ⑤번 기록에서만 박종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즉,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승호가 박종원에게 김채만의 소리를 배운 것은 확실하며, 1930년대 후반 상경 이전과 이후로 김채만제 소리를 익혔다고 하겠다.

한승호는 김채만의 적벽가로 1976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 (5) 한성태

한성태는 1890년 전라남도 담양 운산리 출생으로, 광주에서 성장하였다. 가야금산조의 명인인 부친 한덕만에게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배웠고, 5년의 수련 끝에 그 기량이 완숙하였다. 18세(1907)에 김채만의 문하로 들어가 5년간 판소리 지도를 받고, 판소리로 일가를 이루었다. 1912년 광주협률사에서 활동하였고, 1920년 함흥권번의 소리 선생으로 갔다가, 이후 원산·전주·이리·군산·목포·광주·서울의 조선권번 등 여러 권번에 소리 선생으로 있었다. 1931년 1월 7일 급변으로 4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sup>56)</sup> 제자는 두지 못하였고, 아들 4형제 중 2남이 거문고 명인 한갑득, 3남이 판소리 명창 한승호이다.

#### (6) 신용주

신용주의 생몰년은 1865-194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sup>57)</sup> 광주 출신으로 부친은 신갑도이고 복을 잘 쳤으며 승무도 가르쳤다.<sup>58)</sup> 김채만뿐 아니라 이날치의 제자인 강용환에게서도 소리를 학습하였고<sup>59)</sup>, 그의 제자로 알려진 이는 없다.

#### (7) 성원목과 그의 제자

56) 박황(1987), 앞의 책, 192-193쪽.

57) 전경옥 편저(2014), 앞의 책, 84쪽.

58) 이보형·성기련(2003), 앞의 논문, 371-372쪽.

59) 전경옥 편저(2014), 앞의 책, 84쪽.

성원목은 1912년 전남 화순군 출신으로, 성장순의 부친이다. 김채만에게 소리를 배웠으나, 김창환에게 오래 소리를 배워 김채만제보다는 김창환제 소리에 가깝다.<sup>60)</sup> 한일창극단·광주성악연구회·국극협단 등에 함께하였고<sup>61)</sup>, 공옥진·김성권·한승호·한일섭 등을 가르쳤다.

한일섭은 1929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매부인 성원목에게 소리 공부를 시작하여, 5년간 심청가·홍보가·수궁가·춘향가를 배웠다. 1941년 상경한 이후에 이동백에게 적벽가를 학습했으며, 16세인 1944년 사춘기의 변성으로 파성이 되면서, 소리보다는 기악 연주자로 활동하였다.<sup>62)</sup> 광주성악연구회·화랑창극단·국극협단·국극협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공옥진은 1933년 전남 순천 송광면에서 공대일의 4남매 중 둘째 딸이자, 공창식의 손녀로 태어났다. 무용가 최승희의 몸종으로 일본에 팔려갔다가, 해방 뒤 귀국하여 13세 때 조선창극단에 입단하며 예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45년 광주성악연구회·1948년 국극협회에서 활동하였고, 1957-1968년 임방울창극단과 김연수국악단 등에서 창극배우로 활약하면서 김연수에게 심청가를 배웠다. 1978년 서울 무대에서 처음으로 1인 창무극(병신춤)을 선보여 명성을 떨쳤고, 1979년 영광군이 영광읍 교청리에 세워준 공옥진예술연수원에서 지내다가 2012년 별세하였다.<sup>63)</sup>

정리하면, 김채만을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의 소리 계보는 표1과 같이 정리될 수 있고, 이 중 박동실·성원목·한애순·조상선·안채봉·박후성·공기남·공대일·조몽실·조동선·한승호·한갑득·공옥진·한일섭이 광주성악연구소 발족 당시 소속되어 있었다. 즉, 광주성악연구회는 김채만의 소리 계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는 전남의 사회·정치적 중심지로, 20세기 전반 극장 등 공연장이 다수 생겨났으며 판소리를 향유하는 수용자가 많아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전남 서북 지역권<sup>64)</sup> 판소리 명창들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60) 이보형·성기련(2003), 앞의 논문, 368쪽, 3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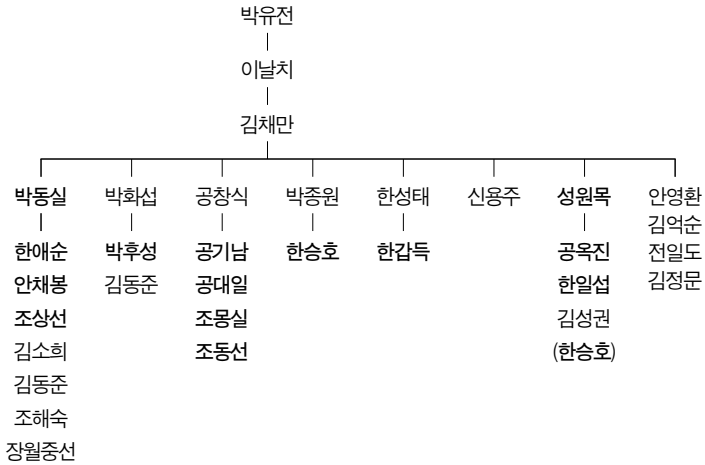
61) 송방송(2012a), 앞의 책, 947쪽.

62) 박황(1976b), 앞의 책, 178-179쪽.

63) 송방송(2012a), 앞의 책, 186-187쪽.

64) 전남의 판소리 음악 문화권은 흔히 동북지역권(곡성, 담양 동북지역: 전북 남원, 고창, 순창과 동일 지역권 형성), 서북지역권(담양과 곡성의 서남부, 화순/광주, 나주, 무안, 함평), 동남지역권(고흥, 순천, 여수), 서남지역권(보성)의 네 권역으로 나뉜다. 김혜정, 「전남지역 판소리의 전승 관도와 위상」, 『남도판소리 학술세미나』(국악협회 광주전남지회, 2004), 26쪽[정대하(2005), 앞의 논문, 51쪽에서 참조].

표1-김채만-박동실 소리 계보



※ 한승호, 박후성, 공기남, 조동선은 박동실에게도 소리를 학습하였다. 볼드체는 광주성악연구회 참여 판소리 창자를 의미한다.

가장 손쉽게 광주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게 되었을 것이고, 동일 계보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광주성악연구회의 결성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 2) 광주 출신 창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

### (1) 김창환협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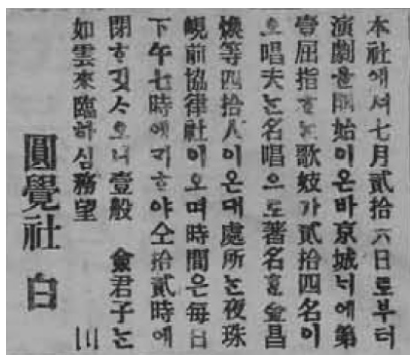
김창환협률사는 1907년 전라도 출신의 명창들을 규합하여 김창환이 조직한 단체이다. 김창환협률사에 소속되었던 이들은 김창환·김봉학·박지홍(이상 김창환 문도)·김채만·안영환·공창식·김억순·신용주·전일도·한성태·박화섭·박종섭(박꾼수)·박종원(이상 김채만 문도)·강용환·유성준·김정길·정학진·안영채 등 5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5)</sup> 이들은 대개 김창환과 김채만의 문도이거나, 김창환과 함께 활동하던 이들이다.

김창환협률사는 강용환 창작의 〈어사와 초동〉<sup>66)</sup>, 강용환 개작·윤색

65) 박황, 『창극사연구』(백록출판사, 1976), 46-47쪽.

66) 배역: 강용환(어사), 김봉학(초동), 김억순(상제 형), 안영환(동생), 김창환(수농부), 유성준(방자)

의 〈심청전〉<sup>67)</sup>, 강용환 작의 〈변강쇠타령〉(1910)<sup>68)</sup>을 공연하였다.<sup>69)</sup> 삼남지방 순회공연 시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sup>70)</sup> 그러나 김창환협률사의 공연 내역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기타 자료의 부재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김창환협률사가 1910년 8월 경상도 남해에서 공연을 하던 중 한일병합의 소식을 접하고 해산하였다고 하는데<sup>71)</sup>, 1907년 조직되어 1910년 해산하기까지 꾸준히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908년 7월 29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원각사 공연에 김창환이 참여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sup>72)</sup>, 1910년 6월 26일 《대한매일신보》 기사<sup>73)</sup>에서는 김창환을 연흥사 창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社에서 七月二拾六日로부터 演劇을 開始이온바 京城にて 第壹屈指 名는 歌妓가 貳拾四名이오 倡夫는 名唱으로 著名한 金昌煥等四拾人이온 대 處所는 夜珠峴前協律社이오며 時間은 每日下午七時에 七時야 全拾貳時에 閉히깃스오니 壹般 僉君子는 如雲來臨하심務望. 圓覺社 白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9일자

또한 1909년 9월 1일자 《황성신문》에서는 개성군에 거주하는 이씨(李氏)인 부자가 연극장을 설치하고자 김창환을 고용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李富說演

開城郡居李某는 該郡首富이라는데 本郡에 演劇場을 設置할차로 倡夫金昌煥을 雇用以去 하얏다더라.<sup>74)</sup>

67) 배역: 박종섭(뽕덕이네)

68) 배역: 정학진(변강쇠), 신용주(옹녀)

69) 박황(1976a), 앞의 책, 46-63쪽.

70) 박황(1987), 앞의 책, 149쪽.

71) 박황(1987), 위의 책, 151쪽.

72) 원각사에서 공연은 이 외에도, 《황성신문》, 1908년 7월 26일자와 1908년 12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6일자에서 확인된다(김석배, 「관소리 명창 김창환의 예술활동」, 『관소리 명창론』, 도서출판 박이정, 2010, 21쪽 참조). 신문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참조(kinds.or.kr).

73)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26일자 기사. “창부간음. 연흥사 창부 김창환은 모모대관의 첩과 간음을 한다 하여 모처에서 유목하는 중이라더라.”

즉, 김창환 및 김채만 문도를 중심으로 전라도 출신의 명창들을 규합하여 조직하였던 ‘김창환협률사’는 조직부터 해체되기까지 꾸준히 활동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삼남지역을 순회하며 창극 등을 공연하였고, 이러한 바탕이 이후 전남지역의 단체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 (2) 양명사와 광주협률사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도 매우 이른 시기에 창극 단체로서의 협률사가 조직된다. 박동실의 증언 자료에는 ‘양명사(陽明社)’라 명명되는 창극 단체가 1909년 조직되어 동년 9월 7일 창립공연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sup>75)</sup>, 박황은 1912년에 조직된 ‘광주협률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sup>76)</sup>

박동실의 회고를 통해 양명사에 대해 언급한 이진원의 글을 살펴보면, 그는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를 동일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박동실에 따르면 광주지역 양명사의 시작은 1909년이라 증언한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박황의 『창극사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1912년 시작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가 하면 정대하는 그의 연구에서 양명사를 제1기(1909. 8.-1920)와 제2기(1921-1925)로 나누었는데, 이는 광주협률사가 1920년까지 존속되다가 김정문·박화섭·한성태 등이 권번의 소리 선생으로 가면서 해산되었고, 이듬해인 1921년 조몽실·박동실 등으로 진용을 강화·재조직하여 이후 4년간 존속하다가 1925년 해산되었다는 박황의 광주협률사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대하 역시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를 동일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박동실의 양명사 기록과 박황의 광주협률사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두 단체를 조직한 시점과 배경이 다르다.

74)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참조(kinds.or.kr).

75) 이진원(2004a), 앞의 논문, 317쪽.

76) 박황(1976a), 앞의 책, 73쪽.

광주에서 창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한 물의가 일어난 것은 펍 이전이었으나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1909년이였다. 그 전에 이미 서울을 왕래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원각사라는 극장이 생기고 여기서 창극이란 것을 하고 있으며 장안에 여론이 분분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이 광대들 사이에서, 또는 애호가들의 사람방들에서 자주 오고가고 하였으며 점차 일을 꾸밀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sup>77)</sup>

1912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협률사가 조직되었다. [...] 김 채만이 아깝게도 1911년 46세에 병사하였으며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아 김 채만의 문도들이 이듬해 협률사를 조직하였는데 이를 사람들은 광주협률사라고 한 것이다.<sup>78)</sup>

양명사는 1909년, 광주협률사는 1912년 조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직 배경에 대해서도, 양명사는 서울의 원각사에서 이루어진 창극 공연에 따른 광주지역 광대들과 애호가들의 논의에서 시작되었고, 광주협률사는 김채만의 문도들이 스승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

양명사의 시작이 1909년이라는 박동실의 증언에 대해서, 이진원은 ① 박동실이 광주 양명사의 첫 창극 춘향전에 춘향으로 출연한 일에 대해 소상히 증언하고 있는 점, ② 1909년은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되기 이전 해이프로 기억이 틀릴 수 없는 연도라는 점, ③ 박동실이 13세 되던 해 광주 양명사에 출현하였다고 하는데, 박동실은 1897년생이므로 그가 13세 되던 해는 1909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양명사가 1909년에 조직되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았다.<sup>79)</sup> 한편, 김채만이 1911년에 병사하고, 이듬해 그 문도들에 의해 ‘광주협률사’가 조직되었다는 박황의 기록도, 협률사의 조직 이유가 사실이라면 연도에 혼동이 있을 수 없다.<sup>80)</sup>

다음으로, 양명사와 광주협률사의 창립공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르다. 양명사의 창립공연은 1909년 9월 7일에

77) 이진원(2004a), 앞의 논문, 317-318쪽.

78) 박황(1976a), 앞의 책, 73-74쪽.

79) 이진원(2004b), 앞의 논문, 182쪽.

80) 박황의 『창극사연구』와 『관소리이백년사』의 기록에는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양명사나 광주협률사에 대한 박황의 기록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창극 단체에 대한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황의 기록을 출발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인정하며, 박황의 기록을 비롯하여 박동실의 증언과 같이 광주지역의 관소리 문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20세기 전반 광주지역 관소리 문화의 열개를 구성하되, 신문자료 등 당시의 기록을 확인하여 최대한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글을 진행하였다.



표2- 양명사와 광주협률사의 창립공연 비교

	양명사	광주협률사
일시	1909년 9월 7일	미상
장소	양명사(극장원공 음력 8월) 광주 북문 안 위치, 임시건물, 2층 구조에 1,000여 명 수용 가능	광주천변의 가설무대
내용	춘향전	춘향전
연출 지도	김낙낙	강용환
출 연 진	한성태(이도령) <sup>81)</sup> , 박동실(춘향), 박종원(춘향모) <sup>82)</sup> , 박화섭(향단), 박재실(사또), 전일도(방자), 김억순(이사), 손철성(목랑청), 정학진(창관), 박흥준(창꾼)	김정문 또는 박화섭(이도령) <sup>83)</sup> , 한성태 (춘향), 신용주(춘향모), 박화섭 또는 김월향 (향단), 강용환 또는 김정문(신관사또), 공 창식(방자), 박종원(형리), 김억순(집장사 령), 박종섭(허봉사), 안영환(운봉장), 성용 태(곡성장), 전일도(후배사령)
공연 방식	전 바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 3일에 걸쳐 진행 앞과장(다양한 연주)과 뒷과장(창극)으로 나뉨	춘향전을 앞과장과 뒷과장으로 나누고, 앞과장이 끝나면 명창들의 판소리와 안영 환의 쥐놀음, 박종섭의 재담으로 엮는 일 인소희극

있었던 〈춘향전〉으로, 연출지도는 김낙낙이 담당하였고, 전 바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반면, 광주협률사의 창립공연은 〈춘향전〉을 공연한 것은 동일하되, 연출 지도를 강용환이 맡았고, 〈춘향전〉을 앞과장과 뒷과장으로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출연진과 배역도 서로 전혀 다르다.

공연을 한 장소 역시 양명사는 광주 북문 안에 완공된 극장(양명사)에서 공연하였으며, 광주협률사는 광주천변의 가설무대에서 공연하였다. 광주읍성은 1907년 철거되어 읍성의 4대문 역시 오늘날 남아 있지 않으나,

81) 박동실의 회고록에는 ‘한승태’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채만의 제자 ‘한성태’의 오기로 보인다.

82) 박동실의 회고록에는 ‘박장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채만의 제자 ‘박종원’의 오기로 보인다.

83) 박황의 『창극사연구』와 『판소리이백년사』에는 광주협률사의 창단공연의 이도령과 향단, 신관사또의 배역을 맡은 인물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창극사연구』에서는 김정문이 이도령, 박화섭이 향단, 강용환이 신관사또를 맡았다고 하고, 『판소리이백년사』에서는 박화섭이 이도령, 김월향이 향단, 김정문이 신관사또를 맡았다고 한다. 두 글 모두에 창립공연에 동참하였던 인물인 신용주와 박종원이 나누었다는 회고담이 실려 있는데, 동일한 회고담을 채록한 글에서도 배역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다.



그림1-옛 광주읍성 동·서·남·북문 위치<sup>84)</sup>

4대문의 위치는 대략 그림1과 같이 추정된다.<sup>85)</sup> 이 경우 ‘광주 북문 안’에 위치하였다는 ‘극장 양명사’는 광주협률사가 창립공연을 한 ‘광주천변’과는 거리가 있다. 광주천변은 서문 밖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광주협률사의 창립공연이 열린 장소인 광주천은 1920년대까지 광주 지역의 여러 행사가 개최되었던 장소이다. 1907년 7월 중순경 순종 황제의 즉위를 기념해 열린 광주 최초의 국악경창대회가 광주천변에서 있었고, 정월 대보름의 줄다리기 행사도 대부분 광주천변에서 개최되었다.<sup>86)</sup> 또한 1920년대까지 광주천에서는 유선놀이를 즐겼다고 한다.<sup>87)</sup>

84) 지도는 네이버 지도 참조 활용.

85) 2002년에 이르러 동구청은 광주읍성 및 성문 유허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를 위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전남문 주변 지표조사를 의뢰했다. 이때 조사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읍성의 축성 시기는 대략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였으며, 철거는 1907년 7월 30일 내각령 1호 ‘성벽처리위원회 규정’이 반포되면서 시작되어 1916년에 완전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읍성의 4대문 위치도 함께 확인되었다. 예컨대 동문 서원문은 대의동 구 광주문화방송국 옆 네거리, 서문 광리문은 황금동 구 광주미문화원 부근 네거리, 남문 진남문은 광산동 구 광주시청을 지나 전남대 의대 가는 네거리, 북문 공북문은 금남로 4가 충장로 파출소 네거리로 밝혀졌다. 또한 북문 밖의 공북루(拱北樓)의 위치는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뒤의 4거리였음이 알려졌다. 김민수,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14) 안개처럼 사라진 광주읍성」, 《경향신문》, 2007년 12월 6일자 기사(news.khan.co.kr/kh\_news).

86) 네이버 블로그: [광주갈피갈피] 그 옛날 광주천은 어땠을까(blog.naver.com/monkkk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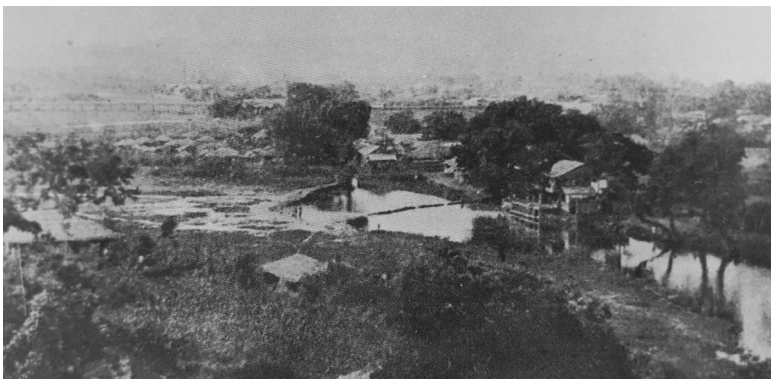


그림2- 1920년대 광주천<sup>88)</sup>

즉, 1920년대 무렵까지 광주천변은 광주지역의 여러 예능이 펼쳐지던 장소이자 지역 행사가 개최되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협률사 공연이 광주천변에 가설무대를 세워 공연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결과적으로, 박동실이 증언하고 있는 양명사의 창립공연과 박황이 기록한 광주협률사의 창립공연은 전혀 다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명사와 광주협률사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양명사에는 악기 연주를 위한 율객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광주협률사에는 율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인원은 도합 4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율객의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장단군들과 특히 〈앞 과장군〉이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sup>89)</sup>

김억순(金億順), 안영환(安永煥), 성용태(成龍泰), 박화섭(朴化燮), 공창식(孔昌植), 신용주(申用柱), 전일도(全一道), 김정문(金正文)<sup>90)</sup>, 한성태(韓成泰), 박종원(朴宗元), 박꾼수<sup>91)</sup> 등의 중심인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다 김 채만(金采萬)의

23702098).

87) 광주직할시기획담당관실,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전일실업출판국, 1989), 94쪽.

88) 광주직할시기획담당관실(1989), 앞의 책, 94쪽.

89) 이진원(2004a), 앞의 논문, 318쪽.

90) 김정문은 1887년 남원 출신으로, 어려서 유성준에게 소리를 공부하였고, 송만갑의 수행고수 노릇을 하면서 송만갑의 지침을 받아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때문에 속곡명창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1908년 송만갑 협률사에 참여하며 김채만의 소리를 듣고 김채만에게 소리를 배우기를 청하였고, 1910년 8월 송만갑 협률사 해산 후 광주 속골로 김채만을 찾아가 1년 반 동안 김채만의 지도를 받았다(박황(1987), 앞의 책, 187-188쪽.). 이러한 김채만과의 인연으로 1912년 광주협률사에 참여하여 8년 동안 명성을 떨쳤다.

문도인 ‘속골’의 명인 명창 들이다.<sup>92)</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지역에 조직되었던 협률사인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는 하나의 단체로 보기에선 설립연도와 배경 및 창립공연의 내용과 구성원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다. 즉,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를 하나의 단체이되 박동실과 박황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두 단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여하튼 광주지역에 조직되었던 양명사와 광주협률사에 속하였던 구성원들의 면면을 1907년 조직된 김창환협률사와 연결지어 살펴보면, 김창환협률사는 김창환 문도와 김채만 문도, 그리고 김창환과 함께 활동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명사 및 광주협률사는 김창환 문도를 제외하고, 김채만 문도를 핵심으로 하는 구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광주협률사의 초창기 진용이 김창환협률사와 양명사에 소속되어 있던 김채만의 문도로 구성되며, 1921년 김채만 문도의 조몽실, 성원목, 박동실이 합류하게 된다. 1921년 합류하는 이들 중에서는 박동실만 양명사와 광주협률사 모두에 참여하였다.

(3) 화랑창극단

화랑창극단은 1939년 박석기를 대표로 하여 창단하였으며, 1942년

표3-김창환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구성원

	김창환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김창환 문도	김창환, 김봉학, 박지홍		
김채만 문도	김채만, 안영환, 공창식 김억순, 신용주, 전일도 한성태, 박화섭, 박종원 박종섭(박꾼수)	김억순, 전일도, 한성태, 박화섭, 박종원  박동실	〈초창기〉 성용태, 안영환, 공창식 김억순, 신용주, 전일도 한성태, 박화섭, 박종원 박꾼수, 김정문 〈1921년 합류〉 조몽실, 성원목, 박동실
	강용환, 유성준, 김정길 <sup>91)</sup> 정학진 <sup>94)</sup> , 안영채 등	박재실 <sup>95)</sup> , 손철성, 박흥준 <sup>96)</sup> , 정학진	

91) 박종섭(朴淙燮)과 동일 인물.

92) 박황(1976a), 앞의 책, 73쪽.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좌와 합병되면서 조선창극단으로 개칭된 단체로, 약 3년여간 활동하였다. 대동은 1938년 여름으로, 화순군 동북면에 소재한 정각에서 박동실의 창 지도와 조상선의 연출로 오랜 기간 연습하여, 이듬해인 1939년 3월 광주극장에서 〈춘향전〉 창립공연을 하였다. 이때의 배역은 박후성(이도령), 한일섭(방자), 조몽실(후배사령), 김소희(춘향), 임소향(춘향모), 박농주(향단), 조상선(사또), 공기남(집장사령)이 맡았다.<sup>97)</sup>

이어, 화랑창극단은 서울로 상경하여 동양극장에서 공연을 올렸다. 이에 대한 기사는 1940년 12월 20일자 《매일신보》 4면<sup>98)</sup>에서 찾을 수 있다.

#### 唱劇團『花郎』

##### 第一劇場서 創立公演

朝鮮固有의 音樂과 舞踊을 살리어써 眞實한 古典唱劇樹立을 目標로하는 唱劇團『花郎』이 結成 되어 오는二十四일부터 三十一日까지 第一劇場에서 ○生公演을 가지게되었다. 上演藝題는 朝鮮古譚歌舞劇『八潭春夢』三幕六場과 新羅傳說의 唱劇『奉德寺의神鐘』四幕七場이다. 李花中仙 金綠珠 金素姬氏도 贊助出演 더욱 同劇團의 結成主要 멤버어는 다음과 같다.

企畫部에 朴珍氏 文藝部에 金光宇씨 舞踊은 韓成俊 演技部男子에 趙相鮮 朴東實 李起權外 女子에金如蘭 趙素玉 金順姬外 諸氏들이다.



《매일신보》, 1940년 12월 20일자

- 93) 김정길(金正吉 1875-1964). 전남 영광 출신. 처음 정창업 문하에서 소리 공부를 하고, 후에 박기흥의 지침을 받았다. 박황(1976b), 앞의 책, 86쪽.
- 94) 정학진(丁學珍, 1863-1912). 전남 함평 출신. 정창업의 아들로 박유전의 수제자. 박황, 앞의 책, 84쪽.
- 95) 임방울의 첫 스승이나, 박재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 96) 박흥준, 손칠성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 97) 박황(1976a), 앞의 책, 121-122쪽(박황의 책 122쪽에는 1939년 광주극장에서 공연된 〈춘향전〉의 광한루 장면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도령 역의 박후성, 방자 역의 한일섭, 후배사령 역의 조몽실이 사진에 등장).
- 98)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kinds.or.kr). 이하 화랑창극단 관련 《매일신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참조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제일극장에서 창립공연을 한다는 기록으로, 1940년 12월 24-31일까지 8일간 〈팔담춘몽〉과 〈봉덕사의 신종〉<sup>99)</sup> 두 작품을 공연하였다. ‘창립공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창립공연은 1939년 3월 광주극장에서의 〈춘향전〉 공연이고, 이는 서울에 상경하여 이루어진 첫 공연이다. 이 기사에서 창극단 ‘화랑’은 기획부와 문예부로 나뉘어 있었으며, 실제 예능을 담당한 이들은 무용과 연기부로 나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연기부에 남자로는 조상선·박동실·이기권 등이 속하였고, 여자는 김여란·조소옥·김순희 등 여러 명이 있었다. 이 공연에는 찬조 출연으로 이화중선, 김록주, 김소희도 함께하였는데, 찬조출연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극단 화랑에 소속된 구성원은 아니었다.

1939년 광주에서의 창립공연에 이어 1940년 12월 서울에 진출하였으나, 화랑창극단은 1941년 전반기 약간 주춤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41년 10월 22일자 《매일신보》에 일시 침체 중에 있던 화랑창극단이 새롭게 정비하여 재출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 劇團 “花郎”

內容強化코再出發

鄉土舞踊과 唱劇으로서基盤있는 藝術家들로 組織된 劇團『花郎』은 一時 沈滯中에잇든바 最近이에 뜻을둔 分들의 손으로 內容을 強化擴充하여 再出發을 보게되었다. 劇團『花郎』은 朴錫紀氏가 引繼하여 崔南善, 鄭魯湜, 李輔相, 徐珉鎬, 金良洙五氏를 發起人으로하여 藝人과 뒷『스탑』도 強化하는 同時에 來月初旬 中央公演을하리라고하는바 同劇團의 再起는 斯界의 큰期待를 맞고있다(寫眞은 朴氏)



(《매일신보》, 1941년 10월 2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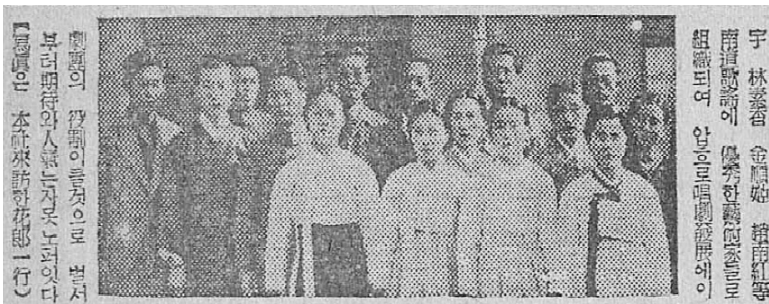
99) 극 내용은 신라시대 봉덕사의 에밀레종을 만들 때 거기에 얹힌 슬픈 전승을 소재로 다룬 것으로, 창극단에서 역사물을 취급한 것은 화랑창극단이 처음이었다. 박황(1987), 앞의 책, 222쪽.

이 기사에 의하면, 1941년 창극단 화랑이 재출발하면서 박석기가 인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박황의 기록에는 1939년 창극단 화랑의 조직이 박석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적고 있어<sup>100)</sup>, 확인이 필요하다. 박석기 이외에 발기인으로 최남선, 정노식, 이보상, 서민호, 김양수 등 5인이 참여하였고, 예인뿐 아니라 스태프도 강화하였다. 새롭게 재정비된 창극단 화랑은 1941년 11월 5-6일 양일간 동양극장에서 공연을 올리는데, 이 공연은 “혁신제1회공연”이라 칭하였다.

#### 劇團花郎

五,六日東劇公演

劇團 花郎은 朴錫紀氏가 引繼經營하게되어 崔南善 鄭魯湜 徐珉鎬氏等の 後援으로 內容을強化 陣容을整頓하여 이미地方公演을마치고 革新第一回公演을 오는五六兩日間 東洋劇場에서 幕을열기로되었다. 劇團花郎에는 趙相鮮 金覽宇 林素香 金順姬 趙南紅等 南道歌謠에 優秀한 藝術家들로 組織되어 압흐로 唱劇發展에 이劇團의 役割이 클것으로 벌써부터 期待와人氣는 자못노파있다. (寫眞은 本社來訪한 花郎一行)



《매일신보》, 1941년 11월 1일자

100) 1939년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지실 거주 박석기(朴錫紀)에 의하여 ‘화랑창극단(花郎唱劇團)’이 조직되었다. 박황(1976a). 앞의 책, 121쪽.

공연 기사에 의하면, 박석기가 인계 경영하게 되었음이 확인되고, 1941년 10월 22일 기사에서 발기인 5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최남선과 정노식 등의 후원으로 창극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 중에 “이미 지방 공연을 마치고”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공연에 앞서 지방에서 공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지역에서 무슨 공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동양극장에서 공연된 이 공연 역시 공연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1941년 11월 5-6일 동양극장에서 이서구 작의 창작 창극 〈망부석〉을 공연하였다는 기록<sup>101)</sup>이 있으므로, 《매일신보》의 공연 기사는 〈망부석〉에 대한 기사로 볼 수 있다. 구성원으로는 조상선, 김남우, 임소향, 김순희, 조남홍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화랑창극단은 이어 1942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민관에서 〈항우(項羽)와 우미인(虞美人)〉을 공연하였다. 1942년 3월 16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공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中國領事館後援 楚漢傳 『項羽와 虞美人』

十七,八,九日 府民館公演

그간 ○○한 唱劇藝術을 ○皮○展하자는 意○로 名唱歌手로 組織된 劇團 『花郎』은 오는 十七 八 九 三日間 府民館에서 『楚漢傳』을 主題로한 李雲方 작 『項羽와 虞美人』(五幕)을 全昌根氏演出로 上演하기로되었는데 이企劃은 ○山商率○行部에서세워 一般에公○提供하기로하는한편 特히京城駐在中華民國總領事館에서 後援을 마터 보기로되어 이楚漢傳을 더욱 意○있게 하게되었다.

內容은 一千八百餘年前 ○○時代 楚漢의兩期看 項羽와 劉邦과사이에 버러진싸움 더구나 一代의美人 虞美을 가운데 두고 兩雄의 싸움은 더욱○○○烈한 戰史를 남긴것이지만 이는 正○를爲하야싸운 자나의 첫記錄인 것으로 大東亞○○下 큰意○를가진 것이다. 이公演을압두고中華民國總領事 林○宇氏는 다음과가치말한다. 『각 본을보고 고내용이 지금 이시국에 알맞는내용이였으므로 후원을승락하였다 이극을 보면 한패왕과 초패왕의싸움은 시대는다르나 지금의대동아전쟁과비슷한 일면이있 으며 정의는어느때나 익인다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잘느끼게할줄로믿는다』

(《매일신보》, 1942년 3월 16일자)

조직을 정비하고 재출발한 화랑창극단은 이듬해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좌와 합병된다. 《매일신보》, 1942년 8월 28일자 기사에 의하면 창극좌

101) 백현미, 『한국 창극사 연구』(태학사, 1997), 312쪽.



와 화랑이 합쳐져 ‘조선창극단’을 결성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연극 및 연예 단체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02)</sup>

唱劇座，花郎合同

朝鮮唱劇團

지난 演劇, 演藝團體의 統制와 合同의 機關으로서 演劇文化協會가 생긴뒤 各演藝團體의 制限과 統制가 되어오든중 이機會에應하여 지금까지 朝鮮의聲樂人을 中心으로된 唱劇座와花郎은 이번合同하여 朝鮮唱劇團을 結成하였다

(《매일신보》, 1942년 8월 28일자)

일본의 통제와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극좌와 화랑이 합쳐졌지만, 그간 두 단체가 갖고 있던 영향력과 새롭게 출발하는 “조선창극단”의 위상은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2년 11월 4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 지도는 박석기와 허순구 두 사람이 맡으며, 1941년 화랑이 재정비될 당시 후원하였던 최남선, 정노식, 이보상을 비롯하여, 이광수 등이 또한 후원자로 나섰고, 미술과 의상에서 각계의 권위 있는 이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唱劇座花郎合同

朝鮮聲樂研究會의 新出發

조선고유의 창극(唱劇)을 더욱더 건전하고 시국에 알맞도록하고자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 직영 창극좌(唱劇座)와 창극단 화랑(花郎)은 이번엔 합동을하여 박석기(朴錫紀) 허순구(許舜九) 양씨의 지도아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되었는데 특히 이를기회로 가사(歌詞)와 고증(考證) 등 창극에 중요한 재료는 최남선(崔南善) 이보상(李輔相) 정로식(鄭魯湜) 이광수(李光洙) 씨 등이 이를 담당하여 후원하기로 되었고 미술(美術)에는 김은호(金殷鎬) 허백련(許百鍊) 박승무(朴勝武) 배운성(裴雲成) 의상(衣裳)에는 유자후(柳子厚) 씨등 사계의 권위들이 이를 후원하기로되었 다고한다. 그리하여 불원간 중앙공연을하려고 준비중이라고하는데 조선 창극의 발전에 기대가크다

(《매일신보》, 1942년 11월 4일자)

102) 1940년 경무국은 창극단체를 연극협회에 소속시켜 이를 경무국이 관장, 감독함으로써 창극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1940년 4월에는 조선음악협회 내에 일본 노래를 주로 하는 방악부와 조선악부를 두고, 조선성악연구회 간부들을 경무국으로 불러 창악 기악인은 조선악부에 가입시키고, 창극단은 연극협회에 소속시켜 성악연구회를 해체 하라고 강압하였다. 당시 활동하던 창극단도 제한하고, 단체의 수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자, 화랑창극단과 창극좌 두 단체가 연합하여 ‘조선창극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박황(1987), 앞의 책, 225-227쪽.

이와 같이 1939-1942년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표적인 창극단으로 존재하였던 ‘화랑’의 진용을 살펴보면, 신문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상선, 박동실, 조남홍, 이기권, 임소향, 김순희, 김여란, 조소옥 이외에도 여러 판소리 창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화랑창극단의 진용을 보면 창극좌에서 떨어져 나온 조상선, 한주환, 김여란, 김소희 등을 중심으로 박동실, 조몽실, 김막동, 공기남, 주광득, 한갑득, 박후성, 한승호, 한일섭, 임소춘, 박농주, 최명숙 등으로 구성되었다.<sup>103)</sup>

그 외에도 1922년 나주군 남평면 출신으로 박기채와 임방울에게 소리를 배운 신평일(申平日)도 화랑창극단에 입단하였다고 한다.<sup>104)</sup> 이들은 대부분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음악인들로, 김채만 계보의 소리꾼이 다수를 차지한다. ‘김창환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의 구성원 변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창환협률사’는 김창

표4-김창환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 구성원 비교

	김창환 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
김창환 문도	김창환, 김봉학, 박지홍			
김채만 문도	김채만, 안영환, 한성태, 박화섭, 박종원, 김억순, 신용주, 공창식, 전일도, 박종섭(꾼수)	한성태, 박화섭, 박종원, 김억순, 전일도, 박동실	한성태, 박화섭, 박종원, 김억순, 신용주, 공창식, 전일도, 박꾼수, 박동실, 조몽실, 성용태, 안영환, 김정문, 성원목	박동실, 조몽실, 공기남, 한갑득, 김소희, 박후성, 한승호, 한일섭, 조상선
	강용환, 유성준, 김정길, 정학진, 안영채 등	박재실, 손철성, 박흥준, 정학진		한주환, 김여란, 김막동, 주광득, 임소춘, 박농주, 최명숙, 신평일, 김남우, 임소향, 김순희, 조남홍

103) 박황(1987), 앞의 책, 222쪽.  
 104) 박황(1976b), 앞의 책, 191쪽.

환과 김채만 문도를 중심으로 김창환과 함께 활동하였던 이들로 구성되며, '양명사' 조직에서는 김창환 문도가 빠지고 김채만 문도를 중심으로 하고, 김채만 문도가 아닌 이들 중에서는 정학진이 유일하게 김창환협률사와 양명사 모두에 속해 있다. 이후 '광주협률사'는 오로지 김채만 문도를 중심으로 하며 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되고, '화랑창극단'은 김채만 문도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당대에 활동하던 여러 창자가 함께하였다. 즉, 네 단체 모두에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소리 전승이 이루어진 김채만 문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리하면, 광주지역의 김채만 문도 중심의 탄탄한 소리 계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20세기 전반 창극 단체의 지속적인 출연은 해방 후 광주성악연구회 촉발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III. 광주성악연구회

#### 1. 발족과 활동의 지속 여부

광주성악연구회에 대해 서술한 기록으로는 광주 출신인 박황의 저서 『판소리 이백년사』와 『창극사연구』가 있다. 그는 광주성악연구회에 관여하면서 1945년 10월 15일 광주극장에서 있었던 광주성악연구회의 직속 창극단의 첫 공연인 〈대홍보전〉을 각색하기도 한 인물이다.

광주에서도 창악인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광주성악연구회가 발족하였는데 그 진용은 다음과 같다.

박동실(朴東實) 오태석(吳太石) 조몽실(曹夢實) 조상선(趙相鮮) 성원목(成元睦)  
조동선(曹東善)

공대일(孔大一) 공기남(孔基南) 주광득(朱光得) 한영호(韓英鎬) 한갑득(韓甲得)  
박후성(朴厚性)

한일섭(韓一燮) 한승호(韓昇鎬) 안채봉(安彩鳳) 한애순(韓愛順) 박농주(朴弄珠)  
김경애(金敬愛)

공옥진(孔玉珍)

등등으로 직속 창극단을 조직하고 1945년 10월 15일 광주극장에서 박황 각색의 「대홍보전」을 가지고 봉화를 올렸다. 광복 후 창극단이 조직된 것은 이것이 최초이며, 조국광복의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심리적인 면도 작용하였거니와 출연자 전원의

열연으로 대성황을 이루었고, 광주시민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이다.<sup>105)</sup>

광주성악연구회의 창단공연 〈대홍보전〉은 매우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광주에서뿐 아니라 전남 일대를 2개월여간 순회공연하였다고 한다.<sup>106)</sup> 그러나 10월 15일 창단공연 이후에 2개월여의 순회공연에 대해서는 의문 가는 부분이 있다. 1945년 11월 22일자와 23일자 《중앙신문》에 실린 조선창극단의 혁신대공연 기사에 의하면, 11월 22일부터 주야로 〈춘향전〉, 〈장화홍련전〉, 〈홍보전〉, 〈심청전〉이 공연된다고 하는데, 출연진 가운데 광주성악연구회에 동참하였던 오태석과 박농주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다.<sup>107)</sup>

朝鮮唱劇團革新大公演 二十二日부터晝夜  
春香傳 五幕十二場  
薔花紅蓮傳 三幕七場  
興甫傳 五幕六場  
沈清傳 五幕七場  
金演洙 吳太石 白點奉 趙漢伸 方泰珍 姜章沅  
○丘明 梁○植 金天吉 朴英珍 丁元燮 朴綠珠  
元玉花 金錦蓮 吳東月 方弄珠<sup>108)</sup> 成美香 朴初月  
第一劇場

(《중앙신문》, 1945년 11월 22일자)<sup>109)</sup>

朝鮮唱劇團  
解放記念第一回公演  
二十二日부터 晝夜五日間  
春香傳 五幕十二場  
金演洙 丁南希 吳太石 白點奉 姜章沅 朴英珍  
丁元燮 方泰珍 趙漢伸 金元吉 朴東俊 金珖烈  
朴綠珠 元玉花 成美香 朴弄珠 韓山月 朴初香  
高玉順 李漢淑 金錦蓮 趙柳色

105) 박황(1987), 앞의 책, 271-272쪽.

106) 박황(1987), 위의 책, 271-272쪽.

107) 《중앙신문》, 1945년 11월 26일자에는 조선창극단의 〈장화홍련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고, 여기에도 오태석과 박농주의 이름이 보인다.

108) 11월 22일자 기사에는 方弄珠라고 되어 있으나, 다음날인 11월 23일자 기사에는 朴弄珠라고 정정되어 있다.

109) 이후 《중앙신문》 기사 검색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nl.go.kr) 참조.

廿六일부터 장화홍연던

第一劇場

(《중앙신문》, 1945년 11월 23일자)

그런가 하면, 《중앙신문》, 1945년 11월 2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解放된 宮廷音樂 雅樂의 街頭進出

國樂院서 『春香傳』 歌劇化

國樂院은 創設以來 實踐內容과 陣容을 強化하고 第一回發表會를 開催하고져着想과 構圖를 거듭한結果 우리民族音樂(雅樂 唱樂 舞踊 民謠 俗曲)을 綜合的으로 構成表現할수있는 古典의인 『春香傳』을 一大歌劇으로 劃期的新編成으로서 公演키로 決定하고 이미 此準備에 着手하였는데 이大規模의 準備에는 多少에難關이잇었스나 協贊委員의 積極的協力을어디 十二月中旬頃發表會를 열기로되였다는바 出演人은 朝鮮에숨은 斯界의權威를網羅하였고 더욱이特色은 古典雅樂이 過去, 牆壁을 脫皮하여 大衆앞에서演奏하는 것으로 이에出演總廷人員은 實로三百二十名이라하여 期待된다. △原案 國樂院文化局 △脚色 金無何 △演出 安鍾相 李曙卿 考察 國樂院文化局研究部 △裝置 元雨田 金雲善 衣裳 國樂院文化局文藝部 △雅樂指導 張寅澣 △唱樂指導 李東伯 朴東實 △舞踊指導 李珠煥 趙相鮮 國樂院事務所는 서울市 茶坊洞 九二番地

(《중앙신문》, 1945년 11월 29일자)

위 기사는 서울의 국악원에서 대대적인 규모의 가극 〈춘향전〉을 기획하고 있고, 이 공연이 12월 중순경에 있을 것이라는 기사이다. 기사의 말미에 창악지도를 이동백과 박동실이 맡았고, 무용지도는 이주환과 조상선이 맡았다고 되어 있다. 박동실과 조상선은 광주성악연구회의 일원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이들이 1945년 11월 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12월에 공연 예정인 국악원의 〈춘향전〉 공연에서 각각 창악과 무용 지도를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즉, 1945년 10월 15일 광주극장에서의 창단공연 〈대홍보전〉 이후로 몇 차례의 전남 지역에서의 공연이 더 있었을 수 있으나, 박황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2개월의 순회공연 및 연구회의 운영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성원들 중 서울 및 중앙의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들의 경우 단체 활동과 개인적인 활동을 병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앙신문》 1945년 12월 8일자에 실린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창립 기사를 보면, 중심인물로 박동실·안기옥·조상선·한승호·유창준·임소향·공기남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박동실·조상선·한승호·공기남은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원이다. 또한 기사 하단의 진용 부분에 의하면 광주성악연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박동실이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부회장과 창극부장을 맡고 있으며, 조상선은 무용부장을 맡았고, 종고부장의 성원목 역시 광주성악연구회의 일원이다.

다시찾는 우리古典音樂

全文化人網羅로 研究會誕生

오랫동안 봉건적전대를 바더오든 우리국보적 고전음악도 자유해방의 새벽을맞이하야 찬란히 싹트고있는데 시〇의 거장음악가 박중실(朴重實)<sup>110)</sup> 현악의 안기옥(安基玉) 그리고 창극의 조상선(趙相鮮) 한승호(韓昇鎬) 유창준(柳昌俊) 임소향(林素香) 공기남(孔基南) 등제씨를 중심으로 고전옹호의선구 윤병길(尹炳吉)씨와 제휴하야 금번조선고전음악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그첫공연으로는 벌서 창극 『建設하는 사람들』을가지고 남부조선각지방을 순회공연하야 총수입십여만원은 전채동포구제사업에 현금하였다고하는바 다시제이회공연부터는 회의기구충척신하고 특한문화인임화(林和) 송석하(宋錫夏) 이심조(李深朝) 이태준(李泰俊) 이병기(李秉岐) 안영일(安英一)씨 등을 심의실위원으로 위촉하는 동시에 대작 『論介』를 목하준비중이라고하야 우리 고전재인의 첫봉화를 들어일만의 큰기대를 사고있는데 그진용은 會長尹炳吉 副會長朴東實 文藝部長高薰 唱劇部長朴東實 絃樂部長安基玉 管樂部長柳昌俊 鍾鼓部長成元陸 舞踊部長趙相鮮 敎化部長尹松坡 『論介』 스타프 原作高薰 作曲朴東實 管絃樂指揮安基玉 舞踊指揮趙相鮮 演出安英一 裝置金一影 考證審議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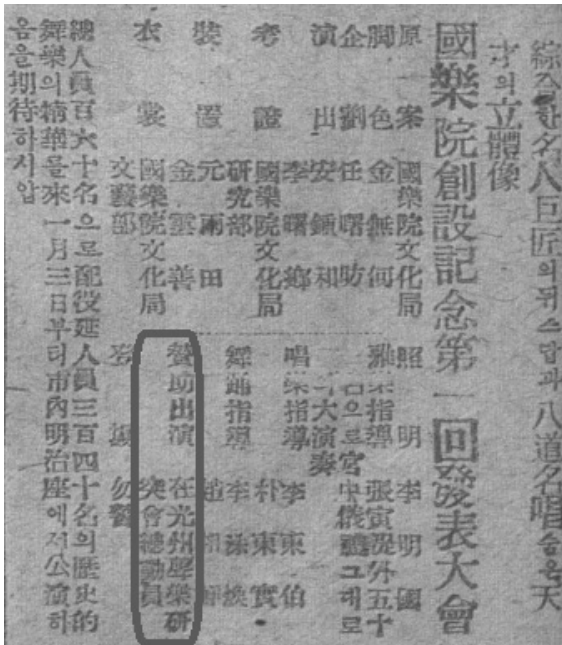
(《중앙신문》, 1945년 12월 8일자)

즉, 광주성악연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이들이, 1945년 12월에 창립된 조선고전음악연구회에서도 부회장, 창극부장, 무용부장, 종고부장 등을 담당하며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사가 실린 1945년 12월 8일에 앞서,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첫 공연인 〈건설하는 사람들〉이 남부조선 각 지방에서 순회공연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이 아닌 남부지역에서 먼저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

110) 박중실(朴重實)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사의 하단 진용 부분에서는 副會長朴東實, 唱劇部長朴東實이라고 되어 있으며, 박중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즉, 박중실이 아니라 박동실의 오타로 생각된다.

원들에 의해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태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원들이 1945년 11월과 12월, 광주성악연구회 이외의 단체에서 활동한 기록이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 발견되긴 하나, 이 무렵 광주성악연구회가 해체된 것은 아니다. 1945년 12월 12일자 《중앙신문》 기사에 광주성악연구회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綜合한 名人巨匠의 뒤스답과 八道名唱畵은天才의立體像

國樂院創設記念第一回發表大會

原案 國樂院文化局 脚色 金無何 企劃 任曙昉 演出 安鍾和 李曙鄉 考證 國樂院文化局研究部 裝置 元雨田 金雲善 衣裳 國樂院文化局文藝部 照明 李明國 雅樂指導 張寅湜外五十名으로 宮中儀禮그대로의 大演奏 唱樂指導 李東伯 朴東實 舞踊指導 李珠煥 趙相鮮 贊助出演 在光州聲樂研究會總動員 登場 勿警 總人員百六十名으로 配役延人員三百四十名の 歷史的舞樂의精華를 來一月三日부터 市內明治座에서 公演하畵을 期待하시압

(《중앙신문》, 1945년 12월 12일자)

이 기사는 이듬해 1월 3일부터 공연될 국악원 창설 기념 제1회 발표회에 대한 기사로, 창악지도는 이동백과 박동실, 무용지도는 이주환과 조상선, 그리고 “찬조출연 재(在)광주성악연구회총동원”이라고 되어 있다. 즉,

광주성악연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박동실과 조상선이 국악원 창설 기념 공연의 창악과 무용 지도를 맡으면서, 광주성악연구회 회원들이 찬조출연의 형태로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 이 무렵까지 광주성악연구회가 존속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국악원 창설 공연<sup>111)</sup>으로 인하여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원들이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서, 이들의 서울 진출과 함께 연구회는 해체되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1946년 1월 창악·기악인을 망라한 「대춘향전」 공연을 기획하고, 각지의 창악인 전원의 상경을 권고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광주성악연구회의 직속 창극단은 2개월의 순회공연을 마치고 단원 거의가 상경하는 바람에 자연히 해산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기성인, 중견, 신진할 것 없이 서울로 집결하였고, 그 수효는 창악인, 기악인을 합쳐 130여 명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총동원된 대춘향전은 예정대로 당시의 국제극장에서 막을 올렸는데 서울 장안의 인심을 온통 들끓게 하는 대성황이었다.<sup>112)</sup>

## 2. 구성원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원은 박황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실(朴東實) 오태석(吳太石) 조몽실(曹夢實) 조상선(趙相鮮) 성원목(成元睦)  
조동선(曹東善)  
공대일(孔大一) 공기남(孔基南) 주광득(朱光得) 한영호(韓英鎬) 한갑득(韓甲得)  
박후성(朴厚性)  
한일섭(韓一燮) 한승호(韓昇鎬) 안채봉(安彩鳳) 한애순(韓愛順) 박농주(朴弄珠)  
김경애(金敬愛)  
공옥진(孔玉珍)

이들은 대개 김채만의 문도이거나 그들의 제자 및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에 의해 조직되었던 이전의 단체들에 속하였던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김창환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의 구성원과 광주성악연구회의 구성원을 연결 지으면

111) 國樂院서 春香傳公演 明春一月三日明治座에서 기보한바이어니와 고전음악단체 국악원(國樂院)에서 창설기념제일회발표로 ○고전악단을 망라하여 명춘一월三일부터 시내명치좌에서 『춘향전』을 공연한다. 《중앙신문》, 1945년 12월 14일자.

112) 박황(1987), 앞의 책, 272쪽.



표5와 같다.

표5- 20세기 전반 광주지역의 창극 단체와 광주성악연구회 구성원 비교

	김창환 협률사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	광주성악연구회
김창환 문도	김창환, 김봉학 박지홍				
김채만 문도	김채만, 안영환				
	한성태	○	○	한갑득	○
	박화섭	○	○	박후성	○
	박종원	○	○	한승호	○
	김억순, 전일도	○	○		
	박종섭, 신용주		○		
	공창식		○		
			조몽실	○	○
				공기남	○
					공대일, 조동선
		박동실	○	○	○
				김소희	
				조상선	○
					한애순, 안채봉
			성원목		○
				한일섭	○
					공옥진
			성용태, 안영환 김정문		
	강용환, 유성준 김정길, 안영채				
	정학진	○			
		박재실, 손철성 박흥준			
				한주환, 김여란 김막동, 임소춘 최명숙, 신평일 김남우, 임소향 김순희, 조남홍	
				주광득, 박농주	○
					오택석, 한영호 김경애

표5에 의하면, 김창환 문도는 김창환협률사에만 참여하고 이후 양명사부터는 포함되지 않으며, 김채만 문도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채만은 김창환협률사에는 함께하였으나, 1911년에 사망하므로 이후의 단체들에는 속하지 않는다. 대신 김채만 문도들을 중심으로 양명사 이후의 단체들이 조직된다.

한성태·박화섭·박종원은 김창환협률사부터 광주협률사까지 함께 하나, 이후 화랑창극단부터는 이들의 제자인 한갑득·박후성·한승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김억순과 전일도는 김창환협률사부터 광주협률사까지 함께하고, 신용주·박종섭·공창식은 김창환협률사와 광주협률사를 함께하되, 공창식은 그의 제자 조몽실·공기남·공대일·조동선이 광주협률사와 화랑창극단, 그리고 광주성악연구회까지 꾸준히 함께한다. 다만, 조몽실은 광주협률사부터 합류하고, 공기남은 화랑창극단부터, 공대일과 조동선은 광주성악연구회에서 비로소 합류하게 된다. 박동실은 양명사에서부터 합류하는데, 이후 광주협률사와 화랑창극단, 광주성악연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박동실의 제자 김소희는 화랑창극단에, 조상선은 화랑창극단과 광주성악연구회에, 그리고 한에순과 안채봉은 광주성악연구회에 동참한다. 성원목은 광주협률사와 광주성악연구회에 함께하며, 그의 제자 한일섭은 화랑창극단과 광주성악연구회에, 공옥진은 광주성악연구회에 함께한다. 그리고 김채만의 제자인 성용태, 안영환, 김정문은 광주협률사에만 그 이름이 보인다.

결국, 김채만 문도를 중심으로 이들 단체가 조직되었으되, 김창환협률사는 김채만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는 김채만의 제자들 중심이며, 화랑창극단에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김채만의 제자로는 박동실과 성원목이 있고, 대부분은 김채만의 제자들에 의해 양성된 다음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채만 문도 이외에 이들 단체에 합류한 정학진은 김창환협률사와 양명사 두 단체에 함께하고, 주광득과 박농주는 화랑창극단과 광주성악연구회에 함께하는데, 이들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단체에서만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김채만 문도가 판소리 창자들의 경우에는 이들 다섯 단체에 꾸준히 참여하지 않고, 각 단체의 결성 시점과 활동 양상에 따라 이례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정확히는 김창환협률사에 함께한 창자들은 김창환과의 관계 속에서, 양명사는 광주 출신으

로서 합류하고, 화랑창극단은 광주에서 시작하여 서울로 활동 지역을 넓혀 공연을 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이들이 합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 3. 창단공연 〈대홍보전〉

광주성악연구회의 창단공연은 1945년<sup>113)</sup> 10월 15일 광주극장<sup>114)</sup>에서 공연된 〈대홍보전〉<sup>115)</sup>이다. 그러나 창단공연 〈대홍보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조상선이 연출하고 박황이 창작하였다고 하나<sup>116)</sup>, 이 역시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공연이 이루어진 광주극장은 1933년에 설립하고 1935년에 개관한, 광주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건립된 영화 상영관으로, 1935년 10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입장 정원이 1,200명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930년대 광주극장<sup>117)</sup>



그림4-2017년 현재 광주극장

113) 박황의 『창극사연구』 159쪽에는 1955년 10월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114) 전남의 담양과 화순 등지의 토지를 소유하였던 만석꾼이자 광주지역의 경제 문화계의 유지인 최선진(崔善鎭)이 자본금 30만 엔과 불입자본금 7만 5,000엔을 투자하여 1933년에 극장 설립을 신고, 1935년 10월 1일 개관한 광주 최초의 민족자본에 의해 건립된 영화 상영관. 위경혜, 『광주의 극장문화사』(다지리, 2005), 26쪽.

115) 송방송의 『한겨레음악대사전』 203쪽에는 〈대춘향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1946년 1월 광주성악연구회가 해체하게 된 서울에서의 공연 〈대춘향전〉과 혼돈한 듯하다.

116) 송방송(2012a), 앞의 책, 719쪽.

117) 위경혜(2005), 앞의 책, 27쪽.

光州劇場落成

十月一日에 開館

[광주 조선 제1이라고 하는 광주극장(光州劇場)개관 十月一日에 부(府)로 승격하는 광주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본정(本町) 五정목에다가 대극장(大劇場)을 건축중이라고함은 본지에 기보하였거니와 이제 준공케 되어 十月 一일에는 개관한다는데 건평이 四백평이며 공사비는 七만五천원으로서 조선제1의 대극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입장정원은 一천二백명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1935년 10월 1일자)

광주극장에서는 조선 영화를 주로 상영하였다. 그러나 영화 이외의 공연물 상연을 위해서 무대 양쪽에 넓은 배우 대기실과 분장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건물 내부의 2층 양 측면에는 무대 공연에 필요한 조명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판소리 창극 공연 및 노래나 무용, 쇼, 코미디를 합친 악극도 자주 공연되었다.<sup>118)</sup> 또한 광주극장은 영화와 공연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해방 직후에는 정치적인 집회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1945년 10월에는 광주·전남의 전통음악인들이 총망라하여 ‘해방기념 축하 대공연’을 기획하였는데, 이날 공연의 관객은 주로 일본에 의한 징용과 위안부 동원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로 채워졌으며, 행사의 마지막에 박동실이 작사·작곡한 〈해방가〉가 불렸다.<sup>119)</sup>

즉, 광주는 전라도의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 ① 광주극장과 같은 대규모의 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였고, ② 이를 향유할 대중이 있었으며, ③ 해방과 함께 정치적인 집회와 문화 공연 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음악인들의 결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광주성악연구회라는 조직이 해방 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쉬운 점은, 1945년 10월 당시 광주극장에서 있었던 창립공연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당시 광주지역에는 《전남신보》<sup>120)</sup>가 발행되고 있었으나 이 무렵의 신문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1968년

118) 위경혜(2005), 위의 책, 28-29쪽.

119) 위경혜(2005), 위의 책, 33쪽.

120)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의 《광주신보》와 전남의 《목포일보》가 일본의 1사1도 방침에 의해 통합된 것으로, 해방과 함께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45년 8월 31일부터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3월 16일에는 《호남신문》으로 변경되었다. 창간일 1945년 8월 31일, 폐간일 1962년 8월 31일. 유종원·김송희, 『미군정기 지역언론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한국지역언론학회, 2005), 287쪽.

광주극장이 전소되면서 극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도 모두 불에 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다.<sup>121)</sup>

광주성악연구회는 1945년 10월 15일 창립공연을 하고, 이듬해인 1946년 1월에 해체된, 3-4개월 정도 존속되었던 단체이다. 많은 창극 단체들이 생겨나고, 통합되고 없어지기를 반복했던 20세기 전반과 중반의 상황으로 볼 때, 불과 3-4개월의 짧은 시기 동안,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조직되었던 광주성악연구회라는 단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20세기 우리 전통 음악계의 근현대사 연구에서 지방의 판소리문화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논의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지방에 조직되었던 ‘광주성악연구회’에 대한 집중, 그리고 ‘광주성악연구회’가 결성될 수 있었던 20세기 전반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의 판소리 계보와 창극 단체의 활동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 IV. 맺음말

광주는 판소리 서편제의 고장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판소리 명창이 나고 활동하였다. 특히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광주 속골에서 제자들을 양성한 김채만과 그의 문도들은 탄탄한 계보를 형성하며, 전라도는 물론 서울까지 진출하여 20세기 전반 여러 창극 단체와 판소리 공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20세기 전반의 창극 단체로는 ‘김창환협률사’를 시작으로,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이 있다. 김창환협률사는 김창환에 의해 조직되어, 김창환 문도와 김채만 문도 및 김창환과 함께 활동하던 이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후 1910년을 전후로 광주지역에서 조직된 창극 단체인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는 김창환과 그의 문도들이 빠지고 김채만 문도가 중심이 된다. 이어 1939년 조직된 화랑창극단에서는 김채만 문도 내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김채만의 제자들에 의해 양성된 판소리 창자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룬다.

---

121) 2017년 11월 6일 광주극장 관계자 증언.

김채만 문도라는 탄탄한 소리 계보와 지속적인 창극 단체 조직을 통해 축적된 광주지역 판소리 창자들의 역량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광주성악연구회'로 결집된다. 광주성악연구회의 주 구성원은 광주협률사와 화랑창극단의 멤버였던 김채만 문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박동실·조몽실·조상선이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박동실과 조상선은 서울의 중앙 음악계에서도 인정받던 이들로, 광주성악연구회 활동과 함께 서울의 여러 다른 단체의 조직과 공연에도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광주성악연구회 구성원 대부분이 1946년 1월 국악원 창설 공연에 "찬조출연 재광주성악연구회총동원"이라는 형태로 함께하였으며, 1945년 12월에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 창립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광주 및 전라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까지 진출하며 활동을 넓힌 것이 결국 광주성악연구회의 해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어 박동실과 조상선이 월북하면서 광주의 소리 동력은 상실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음악 문화의 흐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 광주지역에서의 성악연구회 조직과 활동은 멈추었지만, 20세기 전반 이들의 활동과 의미는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광주직할시기획담당관실,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전일실업출판국, 1989.
- 국악음반박물관, 『명창, 소리에 힘을 신다』. 채륜, 2014.
-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연구회, 『판소리명창』 창간호. 2005.
- 남평읍지편찬위원회 편, 『남평읍지』. 남평읍지편찬위원회, 2012.
-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 도서출판 사사연, 1987.
- \_\_\_\_, 『창극사연구』. 백록출판사, 1976a.
- \_\_\_\_,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6b.
- 백현미, 『한국 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서, 2012a.
- \_\_\_\_,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서, 2012b.
- 위경혜, 『광주의 극장문화사』. 다지리, 2005.
- 음악동아 엮음, 『명인명창』. 동아일보사, 1987.
- 이보형,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6) 판소리유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 2. 논문

- 권오성, 「판소리 발성법의 특성: 조상선의 글을 중심으로」. 『월북국악인연구』, 국립국악원, 2013.
-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 판소리에 끼친 영향」.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편, 『판소리의 탐구 1』, 신아출판사, 2002.
- 김민수,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14) 안개처럼 사라진 광주읍성」. 《경향신문》, 2007년 12월 6일자.
- 김석배, 「판소리 명창 김창환의 예술활동」. 『판소리 명창론』, 도서출판 박이정, 2010.
- 김혜정, 「전남지역 판소리의 전승 판도와 위상」. 『남도판소리 학술세미나』, 국악협회 광주전남지회, 2004.
- 배성자, 「박동실 판소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성기련, 「1940-195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판소리연구』 제22집, 판소리학회, 2006.
- 유종원·김송희, 「미군정기 지역언론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5.
- 이명진,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속학연구』 제15호, 실천민속학회, 2010.

- 이보형·성기린, 「한승호 명창 대담자료」.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
- 이보형 외, 「판소리 인간문화재 증언자료: 판소리 명창 한승호」. 『판소리연구』 제2집, 판소리학회, 1991.
- 이진원, 「박동실의 “창극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판소리연구』 제18집, 판소리학회, 2004a.
- \_\_\_\_\_, 「박동실 증언 “창극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를 통해 본 창극의 초기 양상」. 『판소리연구』 제18집, 판소리학회, 2004b.
-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1』. 윤이상음악연구소, 1998.
- 전경옥 편저,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 정대하, 「세습무계의 통혼과 판소리 전승의 상관성: 광주소리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병현,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제36권, 한국민속학회, 2002.
- \_\_\_\_\_, 「박동실의 삶과 판소리 활동」. 『월북국악인연구』, 국립국악원, 2013.
- 『조선민족음악가사전(상)』. 길림: 연변대학출판사, 1998.
-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3. 사이트

- 네이버 블로그: 광주갈피갈피(blog.naver.com/monk/23702098)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nl.go.kr)
-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or.kr)



## 국 문 초 록

광주성악연구회는 1945년 해방 직후 박동실·오태석·조몽실·조상선·성원목·공기남 등이 모여 조직한 창극 단체로, 해방 이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조직된 창악인들 중심의 단체이다. 비록, 창단 이듬해 조직이 해체되면서 활동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조직된 판소리 창자들 중심의 단체였다는 데에 광주성악연구회의 의의가 있다.

광주성악연구회가 조직될 수 있었던 동인은, 첫째, 광주지역은 판소리 서편제의 고장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판소리 명창들이 나고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김채만과 그의 문도들은 탄탄한 계보를 형성하며, 전라도는 물론 서울까지 진출하여 20세기 전반 여러 창극 단체와 판소리 공연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담당하였다. 둘째, ‘김창환협률사’를 시작으로 ‘양명사’, ‘광주협률사’, ‘화랑창극단’ 등 광주 및 전라도 출신의 판소리 창자들이 중심이 된 창극 단체가 꾸준히 조직되고 활동하였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조직된 창극 단체인 양명사와 광주협률사는 김채만 문도가 중심을 이루고, 1939년 조직된 화랑창극단에서는 김채만 문도 내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김채만의 제자들에 의해 양성된 판소리 창자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룬다. 이와 같이 김채만 문도라는 탄탄한 소리 계보와 지속적인 창극 단체 조직을 통해 축적된 광주지역 판소리 창자들의 역량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광주성악연구회’로 결집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20세기 전반 우리 전통 음악 문화의 흐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 광주지역에서의 성악연구회 조직과 활동은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20세기 전반 이들의 활동과 의미는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7. 12. 14.

**심사일** 2018. 1. 25.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광주(Gwangju), 광주성악연구회(Gwangju Vocal Music Research Institute), 광주협률사(Gwangju Hyeobryulsa), 화랑창극단(Hwarang Changgeukdan), 김채만(Kim, Chae-Man), 박동실(Park, Dong-Sil), 조상선(Cho, Sang-Seon)

## Abstracts

### Tradition of Gwangju Pansori in the Early and 'Gwangju Vocal Music Research Institute'

Shin, Eun-joo

Gwangju is the hometown of the Pansori *Seopyeonje*, and several Pansori singers emerged from this region. In particular, *Kim, Chae-Man*, a native of Hwasoon, Chunnam, fostered his students in Gwangju, who played leading roles in various Changgeuk groups and Pansori performance in the early 20c throughout Chullado and even Seoul. They formed several Changgeuk groups (Korean classical opera troupe) in the early 20c, starting with '*Kim, Chang-Hwan Hyeobryulsa*' that was organized by *Kim, Chang-Hwan* and then joined by *Kim, Chae-Man* and other followers, '*Yangmyeongsa*', '*Gwangju Hyeobryulsa*', and '*Hwarang changgeukdan*'. However, afterwards, around 1910, *Kim, Chang-Hwan* and his followers left *Yangmyeongsa* and *Gwangju Hyeobryulsa* of the Gwangju region, and the groups were mainly operated by *Kim, Chae-Man* and his followers. In *Hwarang Changgeukdan*, which was subsequently organized in 1939, a new generation of Pansori singers, taught by students of *Kim, Chae-Man*, became the main members.

The rich tradition of Gwangju's Pansori singers, built through a solid pansori genealogy following *Kim, Chae-Man* and their consistent Changgeuk group organization, was consolidated as 'Gwangju Vocal Music Research Institute' with Korea's liberation in 1945. Its main members included followers of *Kim, Chae-Man* who were members of *Gwangju Hyeobryulsa* and *Hwarang Changgeukdan*, and among them, *Park, Dong-Sil*, *Cho, Mong-Sil* and *Cho, Sang-Seon* played pivotal roles. *Park, Dong-Sil* and *Cho, Sang-Seon* were even acknowledged in the Seoul musical circle, and they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several other Seoul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eir work with the Gwangju Vocal Music Research Institute. Most of the group's members made a guest appearance in the inaugural performance of the National Gukak Center in January 1946, and they became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Joseon Classical Music Research Institute' in December 1945.

However, ironically, the process of expanding their activities from the Gwangju and Chullado region to Seoul eventually resulted in the dissolution of the Gwangju Vocal Music Research Institute and as *Park, Dong-Sil* and *Cho, Sang-Seon* crossed over to North Korea, subsequently, Gwangju Pansori lost its driving power.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Pansori singers in the Gwangju region through the Gwangju Vocal Music Research Institute ceased due to Seoul being the center of musical culture at the time, as well as the division of the country, but their contributions and significance in the early 20c should be highlighted and recognized.